조계종 중앙종회 키워드 ☑ 멸빈자사면 ☑ 원로추천 ☑ 은퇴출가

[미리보기] 제208회 임시회 3월 27일 개원

사면-부칙으로 1회 한정
원로-9인 임기만료 앞둬
은퇴-51~65세 행자 1년

올해 조계종 최대의 화두인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 등을 다룰 제208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3월 27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10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08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임시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원해 3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의안과 종책질의 접수 마감은 각각 20일과 22일까지다.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이번 임시회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종헌개정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멸빈자 사면 조치를 당부한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에 따라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가 종헌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헌종법특위는 부칙에서 종헌 제128조(사면 · 경감) 단서조항(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을 1회에 한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2016년까지 멸빈 징계를 받은 자 중 출가독신자로 승려생활을 하는 자다. 사면 · 경감 이후에는 5년간 종헌종법상 선출직 · 직임직 · 품임직 · 선임직 · 위촉직 등 일체 종무직 취임을 제한하고,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서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단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 비위가 아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멸빈된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징계 내용을 비롯해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멸빈자 대사면이 가능키 위해서는 이번 종회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은 종단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중앙종회 개원일 오후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식이 예정돼 있어 평소보다 많은 중앙종회의원이 임시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원로의원 9인 임기 만료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 외에 원로회의 9인의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 추천의 건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오는 4월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은 원로의장 밀운 부림 대종사를 비롯해 원명 지종 · 금성 명선 · 불심 도문 · 천호 월서 · 송암 혜승 · 연암 현해 · 은암 고우 · 도연 법흥 대종사다. 현행 종헌에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원로의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족수 문제가 발생한다.

원로의원 추천은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원로의원이 없는 교구본사인 마곡사 · 수덕사 · 은해사 · 불국사 · 쌍계사 · 금산사 · 대흥사 · 선운사 등 8곳에서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회의서는 교구별로 내부 협의를 거쳐 각 1인의 원로의원 후보만을 추천하도록 해당 중앙종회의원에게 당부하기로 했다. 원로의원 추천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어 종회의원 5인 이상의 추천과 동의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은퇴출가자 법계 '견덕'까지

오랜 기간 논의해온 은퇴출가특별법 제정안은 은퇴출가자에게 이전보다 한 층 높아진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는 은퇴출가자의 연령제한을 51~65세로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55~70세로 추진했지만 현행 일반출가 연령이 50세 이하인 관계로 55세까지 틈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70세에 출가하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은퇴출가자는 강원 등 기본교육이 면제되므로 3년의 행자생활을 부여했으나 출가연령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수정키로 했다.

초안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법계 품수를 가능케 한 점이다. 법계는 수행자의 수행력을 공인받는 것이기도 하고, 좌차 또한 부여되기에 은퇴출가자의 지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계는 견덕(비구니 계덕, 4급 승가고시 합격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과 말사주지 임명은 제한된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구족계 수지 후 5년이 지나면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서는 사찰법 개정안 ·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의 종법 제개정과 초 · 재심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 관련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불기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와 지난 회기서 이월된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 관련 종헌종법 제개정안도 논의된다. **윤호섭 기자**

익명 기부자, 동국대 또다시 기부 '감동'

8년 만에 찾아 2억 원 쾌척

익명의 불자가 동국대에 2억 원을 또다시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최근 중년 여성이 평생 아껴 모은 재산 2억 원을 동국대에 쾌척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최근 동국대 발전기금 모금 담당부서인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을 찾아 기부의사를 밝혔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이 기부자는 "기부는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선행"이라며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서 우리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욱이 면담 중에 이 불자가 2009년에도 3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주상보시'를 한 지 8년 만에 또 찾아와 거금을 쾌척한 것이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평생 독실한 불자로 전국 주요 사찰과 집에서 신행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는 "다만 너무 오랜만에 기부를 하게 돼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시 돈을 모아 기부하기 위해 이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봉투를 다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 감동을 줬다. 이어 "돈을 모아 언젠가 다시 기부할 것이다. 오히려 복을 짓게 해줘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대은 스님

"간선제, 계파정치로 귀결"
"승랍 5년 이상 선거권을"


김경호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공청회 열려

오는 7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태고종이 직선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 의지가 높아 불교계 최초로 수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종단이 될 수도 있단 점에서 주목된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3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와 원로회의 의원, 지방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기조발표와 함께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대은 스님과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중토론에서는 원로의원 스님 10여 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직선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일부 스님들은 선거관리 투명성 강화 등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도산 스님은 기조발표에서 "태고종에는 3800여 스님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설사암에 있어 종단 상황에 관심이 부족하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종도들의 지지를 통한 총무원장의 권위와 대표성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면 종단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대은 스님과 김경호 이사장은 직선제 도입으로 간선제의 계파정치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대은 스님은 "입산 기간이 짧은 종도들의 경우 수행이력상 선거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만큼 5년 이상 종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집행부, 직선제안 일부 공개
지역별 투표 후 중앙서 개표
3월 중앙종회에 개정안 제출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간선제로 인한 폐해를 집중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조계종의 서의현 스님 3선 사태는 간선제에서 대중들의 의사가 종단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극명한 경우"라며 "당시 직선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원로 스님, 본사 등 기득권층에서 반대했고, 결국 현재 계파정치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조계종에서도 현재 직선제 추진에 대해 일부 스님들이 비불교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 자자포살처럼 모든 대중이 평등하게 결정권을 갖는 직선제야말로 불교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의 직선제안도 일부 공개됐다. 도산 스님은 "후보들이 공약, 기조 등을 공약집으로 내면 종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종도들에게 알리는 방안이 있다. 지난 선거 당시 진행한 지역별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투표는 한자리에 모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아 서울, 충청, 영남 등 5개 광역에서 나눠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지역별 개표 시 선거불복 및 부정시비가 일 수 있어 모두 중앙에 모은 뒤 개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선거인단 자격 유무, 공정성 시비, 후보자 검증 등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이날 공청회 여론을 수렴해 3월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왼쪽)와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 후 환한 미소로 기념촬영 하는 모습.

본지, 경제취약계층 지원 MOU

조계종복지재단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협조

본지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경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공동사업에 착수한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박종수)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3월 8일 '경제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불교계 최초로 수행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이 사업을 기사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한다.

이날 박종수 현대불교 대표이사는 "경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4년 간 실시해 온 사업이지만 현대불교와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성공사례 소개를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단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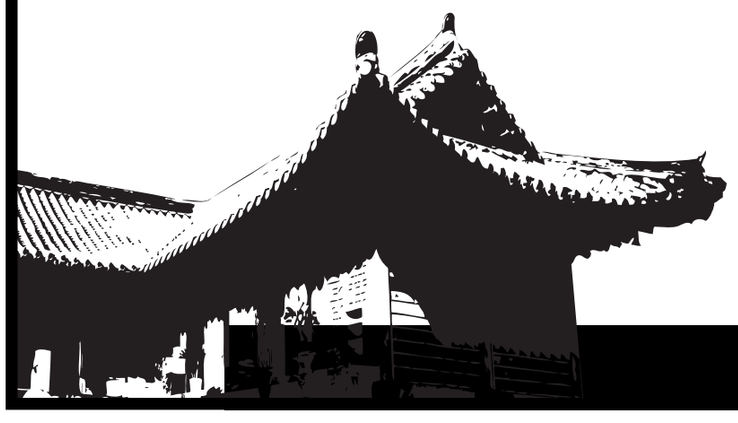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